

인도네시아 의리기 바이어 초청 국내 의리기 제품설명회 개최

벤처산업협회(회장 백종진)는 14일 구로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의리기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의리기 업체의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매 행사를 통해 국내 의리기기업체의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의 국립병원장 및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인도네시아 국회 보사부 관계자, 인도네시아 내 의리기 유통업자 등 40여명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의리기는 타 제품에 비해 개별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절차와 인증서 획득 등이 까다로워 현지의 전문가와의 정확한 컨설팅 및 양자 간 공조가 필요한 분야로, 이번 행사에 INKE 자카르타 지부 회원인 Medicores의 임종택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현지 의리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을 한국 기업들에게 알려주었으며, 향후 진출에 있어서도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2월 중순부터 진행되었던 설명회 참여희망 업체 신청에는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50% 이상 많은 40여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내쇼날네스팅랩아시아의 자궁암 진단시스템, 포스콤의 휴대용 엑스레이, 비엠텍월드와이드의 초음파골밀도진단기, 한솔테크의 의료용 필름 디스플레이, 휴먼메디텍의 저온 플라즈마살균기, 올메디

쿠스의 혈당측정기가 선정이 되어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에게 자사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여 인니 바이어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벤처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유관단체들과 협력체제 구축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은 17일 산업은행(총재 김창록)이 개최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와 함께 협회, 이노비즈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관련협회장을 초청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금융니즈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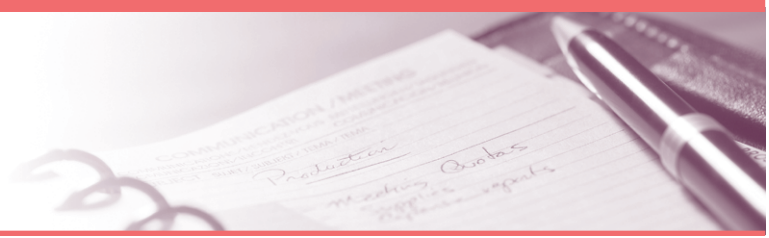
백종진 협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협회와 산은간의 협력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소속 회원사들의 금융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가 회원사들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전달하게 되면 산은은 더욱 효과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록 산은 총재는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현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시대적 과제인 만큼, 산은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중소기업 지원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회원사가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들 간 국내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은의 상생협력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또 산업현장에서 투자상담을 하는 투자마트 개최를 정례화하고 산은의 금융전문가들이 회원사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M&A 등 금융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산은과 관련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은 지난 해 초기기술사업화 투자로 52개 업체에 369억 원, 기술력평가대출로는 83개 업체에 838억 원을 각각 공급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3조 6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3조 3,000억 원을 책정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백종진 협회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시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규제개혁 및 관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조직이다. 매월 1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앞으로 백종진 협회장은 벤처계의 현안을 대변할 계획이다.



중기 단체, 국세청장 초청간담회 가저

27일 백종진 협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사회의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각 분야별 단체 대표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함께 「한상률 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를 포함한 중기단체들은 최근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경영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품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체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지금난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시 유예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해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중소기업에 많은 인적·물적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는 조사주기와 기간, 방법이 있어 보다 단순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사항들이 건의되었으며 이 외에도 「적대비 실명제 기준금액 확대(50만 원→100만 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제 폐지」등 기업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표본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국세행정 선진화를 적극 구현해 친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기업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고 조사기간도 최소기간으로 단축해 세무조사 장기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 경기도와 손잡고 중소벤처 수출지원사업 나서

협회는 24일 경기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인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세미나와 개별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협회가 경기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동남아, 유럽 등 해외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협회 해외지부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하여, 실질적인 현지마케팅 전략을 소개하였고, 직접 수출을 위한 참석기업과의 상담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참석한 해외지부장들은 현지 시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제 비즈니스에 종사해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현지 시장의 특성 및 수출유망분야와 현지 진출 시 유의점 등을 참석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각 해외지부장과 1대1 상담이 이루어져 업체들이 향후 해외시장진출 시 각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진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오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협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30개 해외 지부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약 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협회 전대열 상근부회장은 “벤처산업협회는 앞으로도 많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 아카데미 본격 개강, 벤처 특성화교육 박차

협회의 벤처기업 임직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인 벤처 아카데미가 본격적인 개강시즌을 맞이했다. 18일 <벤처 최고 경영자 과정(5기)>을 시작으로 19일 <Presentation Skill-up 1기 과정>, 20일 <한국형 성과주의의 구축을 위한 제2기 HR전문가 과정>, 26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 잇따라 개강했다. 4월에는 전문가 교육시리즈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전문가 과정(2기)>이 16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교육관련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www.venture.or.kr에서 벤처아카데미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